

3. <보기>의 개요를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제 : 우리나라 리콜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 서론.....㉠
 1. 리콜[소환보상]제도의 개념과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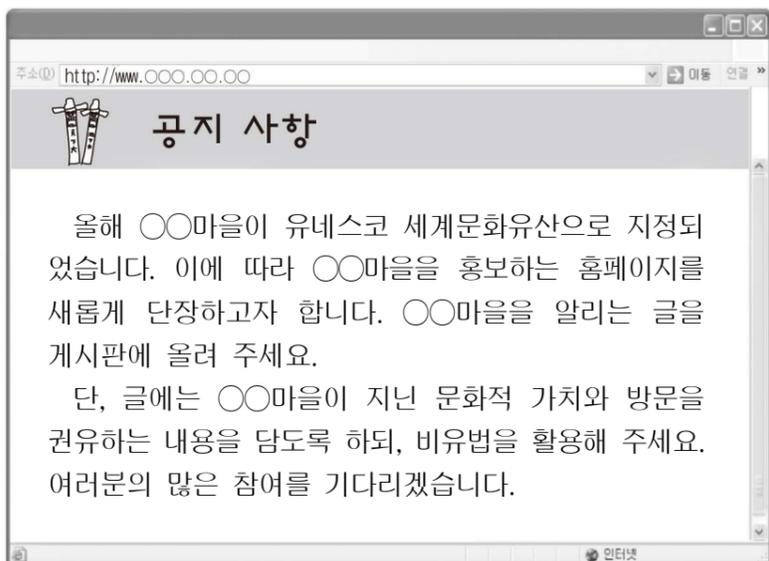
II. 리콜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선진국의 리콜제도 운영 소개.....㉡
 2. 리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무관심
 3. 기업의 자발적인 리콜 참여 의지 부족
 4. 리콜 관련 법령 및 정보시스템의 미비

III. 리콜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
 1.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2. 기업의 자발적 리콜 촉진을 위한 혜택 제공
 3. 리콜 관련 법령 및 정보시스템의 보완
 4. 제조물책임법의 강화.....㉣

IV. 결론 및 제언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 ① ㉠의 하위 항목으로 문제 제기를 위해 ‘우리나라 리콜제도 운영의 실태’를 추가한다.
- ② ㉡은 상위 항목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③ ㉢은 ‘II-3’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으로 수정한다.
- ④ ㉣은 ‘III-3’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리콜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기업·정부의 노력 촉구’로 바꾼다.

4. 게시판의 공지 내용대로 글을 쓰려고 할 때, 공지 내용을 충족한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치가 아름다운 ○○마을! 마을 입구에는 아담한 초가 사이로 점잖은 선비처럼 멀썩한 옥수수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 ② ○○마을에 오시면 옷놀이와 다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한들거리는 ○○마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③ ○○마을은 이미 조선 시대부터 풍수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을을 둘러싼 소나무 숲을 산책하 시면서, 맑은 산새 소리를 들어 보세요.
- ④ 역사가 살아 숨쉬는 ○○마을은 조선 시대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늠름한 기와집이 우리를 반기는 ○○마을에 오셔서 전통의 향기에 취해 보세요.
- ⑤ 가보셨나요? ○○마을.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조선 시대 양반 마을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또한 이곳의 기와집은 다른 마을과는 달리 ㅁ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5. <보기>를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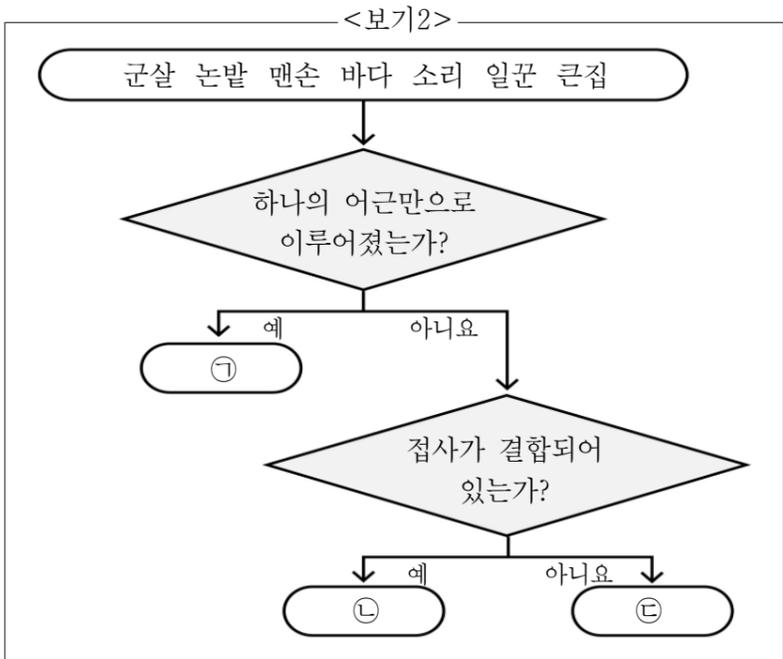
자연계는 언뜻 보면 늪고 병약한 개체들은 어쩔 수 없이 늘 포식자의 밥이 되고 마는 비정한 세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간에 버금가는 지능을 지닌 고래들의 사회는 ㉠틀리다. 거동이 불편한 동료들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 다친 동료를 여러 고래들이 둘러싸고 거의 들어 나르듯 하는 모습이 고래 학자들의 눈에 여러 번 ㉡관찰되어졌다. 그물에 걸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그물을 물어뜯는가 하면 다친 동료와 고래 잡이배 사이에 과감히 뛰어들어 ㉢방해하기도 한다.

고래는 비록 물속에 살지만 엄연히 허파로 숨을 쉬는 젖먹이 동물이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 움직이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쉴 수 없게 되므로 쉽사리 목숨을 잃는다. 그런 친구를 혼자 등에 업고 그가 충분히 기력을 되 찾을 때까지 떠받치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고래들은 먼 거리까지 사냥을 나가 먹이를 구한다. 고래들은 또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무언가로 괴로워하는 친구 곁에 그냥 오랫동안 있기도 한다.

- ① ㉠은 어휘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다르다’로 고친다.
- ② ㉡은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관찰되었다’로 고친다.
- ③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사냥을’을 추가한다.
- ④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또한’으로 바꾼다.
- ⑤ ㉤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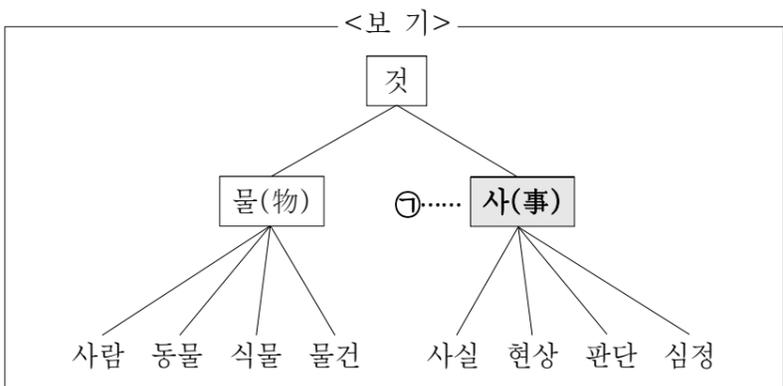
6.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1>
-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를 단일어라 한다.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 ① '바다'와 '일꾼'은 ㉠에 해당해.
- ② '군살'과 '맨손'은 ㉡에 해당해.
- ③ '눈발'과 '일꾼'은 ㉢에 해당해.
- ④ '소리'와 '큰집'은 ㉣에 해당해.
- ⑤ '군살'과 '눈발'은 ㉣에 해당해.

7. <보기>는 '것'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가 산 것은 불량품이다.
- ② 네가 괴로운 것을 알고 있다.
- ③ 물 위에 얼음이 언 것을 보았다.
- ④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은 다 옳다.
- ⑤ 네가 찾아온 것은 삼일 전이었다.

[8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열대 아프리카에서 제작된 주요 미술품은 가면과 3차원적인 조각품과 같은 목조각이다. 이것들은 대부분 각이 졌으며 형태가 왜곡되고 불균형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러한 조각이 자연의 영(靈)과 조상신의 힘이 깃든 신성한 물건으로서 병을 치료하거나 적을 해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특별한 때에는 가면과 조각상을 성지에서 옮겨와 깨끗이 닦고 야자기름으로 광을 낸 뒤 구슬과 옷감으로 장식한다. 조각상에는 ㉠ 외경스러운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의식을 치르는 동안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이 조각상을 보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습한 정글 기후 탓에 대부분의 목조각이 썩어 버렸지만 남아 있는 조각상에는 그들 사회를 반영하는 정서가 ㉡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

아프리카 조각가들은 사실적인 표현 방식을 거부하고 대신 나무의 원통형에서 따온 길쭉하게 늘어진 몸통과 관 모양의 외형, 수직적 형태를 ㉢ 선호했다. 그들은 조각을 혼령이 머무르는 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목조상들이 재앙을 막고 생명체에 축복을 준다고 믿었다.

㉠ 목조 가면은 제례 의식 때 의상과 더불어 사용한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제례 의식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색색의 천을 사용해 옷을 만들고 야자잎 치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 빠른 율동을 취해 가면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된다.

[A] 가면들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묘사된다. 가면은 초자연적인 힘과 대면했을 때,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 조각가는 일련의 들쭉날쭉한 면의 절단법을 사용해 인간 얼굴의 특징을 단순화하고 있다.



피카소, <아비뇰의 처녀들>

유럽의 회화 전통과는 다른 이러한 방식이 1905년경부터 피카소와 입체주의에 ㉣ 영감을 주었다. 피카소는 아프리카 가면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다. 이 가면은 다른 조각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법이였다.”

그 영향은 피카소의 작품 <아비뇰의 처녀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순수 입체주의 시기에서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은 이후의 시기로 넘어가는 ㉣ 과도기적 작품이다. 아프리카 가면의 형태 왜곡과 사물을 동시에 다(多)시점으로 보는 입체주의적 시각을 융합시켜 피카소는 인물을 날카롭게 각진 면으로 그리고 있다.

8.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아프리카 가면은 피카소의 작품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
- ② 아프리카인들은 가면과 조각상을 평소에는 성지에 두었다.
- ③ 아프리카인들은 조각상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 ④ 아프리카 가면에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표현되어 있다.
- ⑤ 아프리카의 목조각은 기후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 남아 있지 않다.

9. [A]를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유럽의 회화 전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형태를 단순하게 표현했다.
- ② 대상의 특징을 과장해서 표현했다.
- ③ 대상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 ④ 대상의 길이를 길게 늘여서 표현했다.
- ⑤ 대상의 형태를 다(多)시점으로 표현했다.

10. 위 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한국 가면극은 농민이나 사당 등에 의해서 연회되며, 배우들뿐만 아니라 관중이 함께 참여해서 즐기는 민중극으로 춤과 노래, 대사로 구성되어 있다. 가면극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면을 썼는데 처음에는 남자들만 가면을 쓸 수 있었다. 가면극은 양반에 대한 조롱, 과거승에 대한 풍자, 부부 간의 갈등 등을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가면극에 사용된 ㉡ **한국의 가면**은 지역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했으며, 극의 내용을 풍자하기 위해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된 것들이 많았다. 사용된 재료로는 나무와 종이, 특히 바가지가 많았고, 주로 청색[동]·백색[서]·주색[남]·흑색[북]·황색[중앙] 등 5방색(五方色)으로 채색되었다.

- ① ㉠과 ㉡에는 모두 채색 기법이 사용되었다.
- ② ㉠과 ㉡은 모두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었다.
- ③ ㉠과 ㉡에는 모두 당대 사회를 반영하는 정서가 담겨 있었다.
- ④ ㉠과 달리 ㉡은 가면을 착용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없었다.
- ⑤ ㉡과 달리 ㉠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되었다.

11. a ~ c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두려워하고 공경함.
- ② b: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탬.
- ③ c: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함.
- ④ d: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 ⑤ e: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거나 바뀌어 가는 도중의 시기

[12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수도
경칩도
머언 날씨에
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기에
호흡은 가빠도 이토록 뜨거운가?

손에 손을 잡고
불에 불을 문지르고
의지한 채 체온을 길이 간직하고픈 것은
꽃피는 봄을 기다리는 탓이리라.

산은
산대로 첩첩 쌓이고
물은
물대로 모여 가듯이

나무는 나무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우리도 우리끼리
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 신석정, 「대춘부(待春賦)」-

(나)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 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다)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 안도현, 「간격」 -

12.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현상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이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연의 섭리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13. (가)와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유사한 어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다)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⑤ (다)와 달리 (가)는 동일한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4. 다음은 (나)를 감상하기 위한 수행평가이다. 학생 답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수행평가

1학년 0반 0번 이름 : 김00

[작품 특징] 시집 『적막강산』(1963)에 수록된 시이다. 이 시는 수용과 달관의 인생 태도를 바탕으로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세계를 수용하는 긍정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문항(배점)	답란
① ◦ 제목 '낙화'의 함축적 의미를 쓰시오.(3점)	낙하는 경식을 위한 희생을 의미한다.
② ◦ '봄'과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5점)	봄과 가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화자의 아픔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 3연에서 두드러진 표현법을 찾아 설명하시오.(2점)	'경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곁으로는 모순되나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④ ◦ 도치법이 사용된 연을 찾아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4점)	5연에서 '헤어지자'를 첫 행에 배치하여 이별을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쓰시오.(6점)	이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신적 성숙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총점 : /20점

15.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가는 이'와 (다)의 '숲'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의미하고 있다.
- ② (나)의 '하룻하룻'과 (다)의 '울울창창'은 대상의 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의 '슬픈 눈'과 (다)의 '나무'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손길'을 흔드는 모습에서, (다)는 '최대한 벌어진' 상황에서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꽃잎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의 화자는 '숲에 들어가' 보는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조세 부담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온 것은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조세 부담률, 즉 조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수준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중 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다 쓴다는 것을 뜻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수준에서 이것도 너무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활동 영역을 좀 더 넓혀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렇다면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조세는 정부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조세는 단순한 수입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이때 조세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남겨 줌으로써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경제 안정을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의 크기를 조정하다 보면 정부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지는 것이 보통인데, 여러 해 동안 계속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국채의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채 발행액의 증가는 나중에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정 없이 국채를 찍어내기는 힘들다. 현대의 정부 중에는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너무 많은 국채가 발행된 나머지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나아가 조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세를 부과한다든가, 오염물질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나아가 법인세제도를 활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16.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의 기능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기준에 따라 논의 대상을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의 변화 양상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 있다.
- ④ 용어의 어원을 밝히면서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17.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② 조세부담률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조세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오늘날 많이 확대되었다.
- ④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이 미흡하다.
- ⑤ 조세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18.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가별 조세부담률(%)

연도 국가	1980	1990	2000	2010
A	25	28	30	35
B	47	52	58	61
C	20	16	13	11
D	52	51	51	52
E	30	30	30	24

- ① A 국가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있군.
- ② B 국가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조세 정책에 반발할 수도 있겠군.
- ③ C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겠군.
- ④ D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높아서 수준 높은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겠군.
- ⑤ E 국가가 최근 조세부담률을 낮춘 것을 보면, 경제 안정 정책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겠군.

19.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나는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②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아 주위가 어지러웠다.
- ③ 영희는 용돈을 절약하여 남은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샀다.
- ④ 그의 첫인상이 나에게 오래도록 남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 ⑤ 은수는 아직 공부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20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토의란,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다. 토의에서는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참가자 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토의는 위와 같은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경우에 알맞은 여러 방식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 결과 토의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다) 원탁 토의는 10명 내외의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어진 토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며 나아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토의 방식이다. 원탁 토의는 비공개적 자유 토의의 대표적 형태로서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 주어진 토의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데 적합하며 여러 사람들이 공동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해하는 데도 많이 사용된다.

(라) ㉠ 패널 토의는 주어진 토의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닌 몇 사람(대체로 3~6인)의 토의자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의견이나 견해 등을 나누는 공개적 토의이다. 토의가 끝난 뒤에는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하여 토의자들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토의는 시사 또는 학술 문제 등에 관한 정보나 의견 등을 청중 참여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의에 많이 이용된다.

(마) 심포지엄은 패널 토의와 그 방식이 비슷하다. 그러나 토의 문제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몇 사람이 토의하는 대신, 토의 문제를 여러 측면(대체로 4~5개)으로 나누어 각 토의자가 각 측면에 대한 정보나 자기의 견해 등을 연설, 강연 등의 형식으로 간단히 발표(10분 이내)한 뒤, 청중과 질의-응답식 토의를 벌이는 것이 패널 토의와 다르다. 이와 같은 심포지엄에서는 각 토의자가 서로 다른 측면이나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하며, 토의자는 각 측면의 전문가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제도 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할 경우, 첫 번째 토의자는 이것에 관한 발제를 해도 좋으나, 두 번째 토의자는 대학의 자율성 위축, 세 번째 토의자는 입시 과열과 사회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네 번째 토의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에서, 다섯 번째 토의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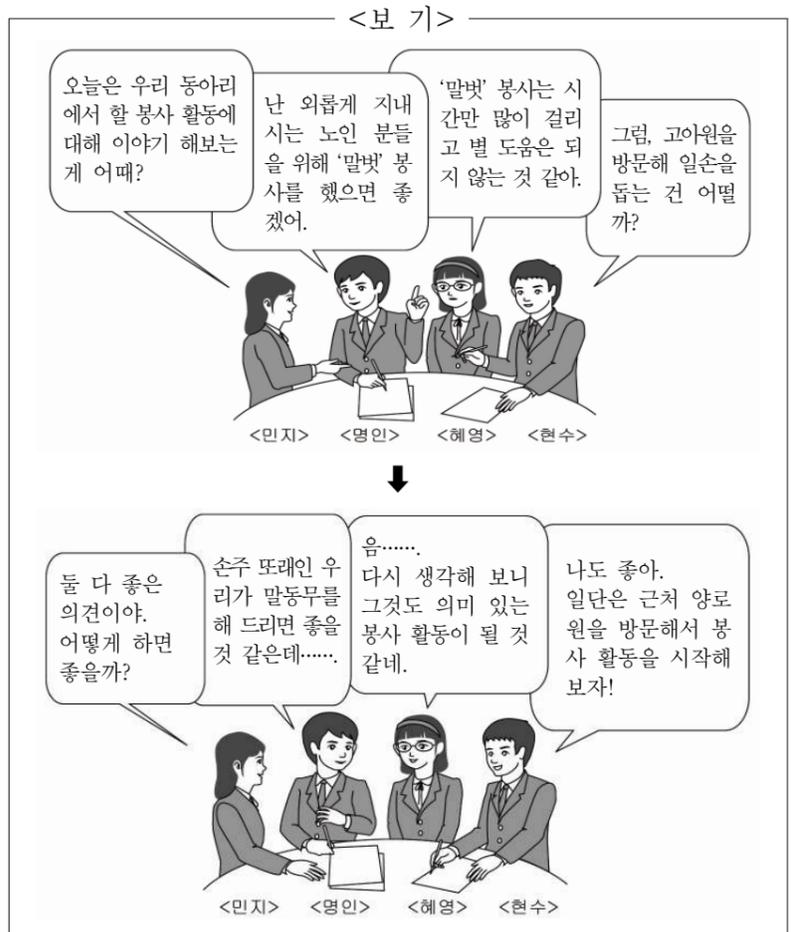
20.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토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나): 앞으로 다룰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다): 원탁 토의의 방식과 장단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④ (라): 패널 토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심포지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고 있다.

21.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안락사,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각계 대표들의 입장 발표
- ② ‘상반기 매출 증가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회사 임원들의 논의
- ③ ‘셋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환경 전문가들의 연설
- ④ ‘한미 FTA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 전문가들의 논의
- ⑤ ‘합리적인 에너지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자력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22. 위 글을 참고로 하여 <보기>의 대화 장면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의견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공개적 토의로 볼 수 있다.
- ② ‘민지’는 대화 주제를 제시하고 대화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동아리 봉사 활동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토의로 볼 수 있다.
- ④ 동아리 봉사 활동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토의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 ⑤ 참석한 동아리 구성원들이 모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토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대학까지 나온 그는 M식품에서 해고된 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신문에 나는 곳마다 이력서를 내었지만 모두 허탕을 친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전통문화연구회’라는 모조품 판매 단체에 외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지만, 그것조차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그에게 회장은 물건을 팔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외웠던 판매 대본을 시원하게 떠들 수 있는 실습 대상을 골라, 막혀 있는 입을 뚫으라고 조언한다.

대합실 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방송실의 왕왕거리는 마이크 소리와 개찰원의 고함, 거기에서
[A] 홀의 중앙에는 텔레비전까지 놓여 있었다. 번쩍이는 긴 칼과 요란한 기합술, 검객들의 질풍 같은 숨씨에 사람들이 우와 탄성을 올렸다.

그쪽에 비하면 출입문 근처의 매점 앞은 한산한 편이었다. 비어 있는 의자도 여럿 있었다. 그는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빈 의자에 앉았다. 열려진 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썰렁했지만 못 견딜 정도로 추운 것은 아니었다.

우선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그를 안심시켰다. 누군가가 그의 **㉠ 빈** 옆자리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 사람에게 다만 이 십 분 정도의 시간 여유만 있다면 더욱 안심이었다. 그 사람은 누구여야 좋을까, 그는 주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둘러본다.

검을 찌고 있는 청년의 빨간 넥타이가 얼른 눈에 들어온다. 서넛이 함께 몽쳐 칼칼 웃고 있는 여학생들, 그리고 토끼털 목도리를 두른 할머니도 있었다. 여학생들은 저희들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을 나누어 가지면서 즐겁게 웃어댄다. 할머니는 누구를 기다리는 듯 잔뜩 초조해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차표를 연신 들여다보고 있다. 탐탁지 않다, 라고 그는 머리를 저었다. 그들은 모두 적당치가 않았다. 정말로 **㉡ 실습** 상대에 불과한, 단순히 그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기만 할 누군가는 그들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비워놓은 그의 옆자리에 웬 사내가 털썩 주저 앉으며 휴우, 긴 숨을 몰아쉬었다. 검색 작업복에 어울리잖게도 밤색 털모자를 꼭 눌러쓴 사내는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부스러 부스러 무언가를 찾는 눈치더니 그에게 불 가진 게 있느냐고
[C] 말을 건네왔다. 거칠고 투덜투덜한 손에 들려 있는, 회고 가느다란 **㉢ 담배** 한 개비가 유독 선명하게 도드라졌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내는 하차장에서 정류장까지 짐을 운반해주는 터미널 소속의 짐꾼이었다. 그의 작업복 등쪽에는 그가 무슨무슨 회사 소속 포터인 것이 분명히 박혀 있었다. 사내가 짐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를 실망시킨 것은 아니었다. 생각해 보면 실습 상대로서는 아주 적합했다. 그는 바짝 긴장했다. 사내가 또 한 차례 휴우, 긴 숨을 쉬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중략)

실습은 끝났다. 빠뜨린 대사는 하나도 없었다. 봉투 안에 팸플릿을 집어넣고 그는 이마에 땀 땀을 닦아내었다. 사내도 털모자를 꼭 눌러쓰고는 일어설 채비를 하였다.

“지루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가 담배 한 대를 사내에게 권했다. 사내가 손을 내저으며 필쩍 튀었다.

“어이구 그게 무슨 소립니까. 입만 아프게 해드리고 그냥 일어서려니까 내가 되려 미안스런 판에……. 그럼 많이 파시구려.”

사내가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실습은 끝난 것이다. 그는 꿈에서 깨어난 듯 멍멍한 시선으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텔레비전의 무협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개찰구 주변의 혼잡도 여전했다. 뭔가 미진한 느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의 옆자리에 다시 누군가가 앉았다. 돌아보니 아까의 그 짐꾼이었다.

“가다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짬짬해서. 그 축대라든가 **㉣** 축대 라는 거 그거 하나 사겠소. 제상에 촛불 켤 때 쓰면 딱 좋겠는데, 비싼 것은 못 사주더라도 그게 제일 값도 헐하니까 내 형편에 만만하고 내가 이래 살아도 권씨 문중의 종손이라 제사가 사흘거리로 돌아오는 몸이래오.”

사흘거리로 돌아오는 제상에 놓을 촛대를 주문한 고객 앞에서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까의 그 쏟아져 나오던 말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고 이번에는 짐꾼이 자신의 대사를 쏟아놓기 시작하였다.

“짐보따리 날라다 주며 먹고 살긴 하지만 조상 대접만은 깎듯이 하며 살지요. 물려받은 논마지기 다 날려 보내고 자식 농사나 지어볼라고 서울 와서 이 고생이오. 한때는 나도 **㉤** 시골 유지였댔오. 행세개나 한다는 집안에서 태어나 큰소리치고 살았는데……. 나이 오십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참 창피한 말이지만 여태 집 한 칸도 없는 신세래오. 한 푼이라도 더 벌여보겠다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아이들은 자꾸 굶어지지, 모아놓은 재산은 없지……. 이거 참, 권 아무개 하면 고향 동네서는 모르는 이가 없었는데……. 이 서울 바닥에선 그냥 짐꾼 권씨로 통한다오…….”

짐꾼 권씨의 대사도 어지간히 길었다. 사내가 그렇게 했듯이 그 또한 사내의 말을 열심히, 고개까지 끄덕여가며 들어
[E] 주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김제에서 올라온 누구누구 엄마는 빨리 방송실까지 와달라는 여자의 코맹맹이 음성을 넘어서, 짐꾼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 양귀자, 「불씨」 -

2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살리고 있다.
- ③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서술되고 있다.
- ④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짧은 문장을 반복하여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24. ㉠~㉤ 중 상징적 의미가 <보기>의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행보사진관. 행복의 ‘복’자에서 기억 받침이 날아가버리고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받침을 찾아 제자리에 붙여 놓지 않으면 영영 달아나버릴 행복이거나 한 것처럼 그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 (중략) … 쉼 바람에 그깟 받침 하나는 이미 십 리 밖으로 날아갔을 것이었다. 받침 조각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행보사진관. 글자들 사이로 여자의 얼굴이 다가왔다. 여자가 떠나거나 떠나지 않거나 간에, **㉠** 날아가버린 기억 받침을 다시는 찾을 수 없으리라. 그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기운 없이 사진관 안으로 들어갔다. 바람은 역세게도 불어댔다.

- 양귀자, 「찾집 여자」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5.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양귀자는 소시민들이 겪는 희망과 절망의 교차를 암담하고 우울한 색조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잃지 않고 그려낸다. 이들 소외 계층의 힘겨운 삶의 행태는 우리의 삶이 겪어야 할 아픔과 설움과 이에 대한 적응을 보여준다. 이러한 삶의 묘사 내에는 가혹한 현실을 겨냥한 풍자 정신도 살아 있다. 또한 그녀의 작품은 능란한 구성과 섬세한 세부 묘사,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어 문학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① '사내'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된 계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외관원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가혹한 현실을 엿볼 수 있군.
- ③ 실습을 끝내는 '그'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해 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대합실 안을 묘사한 대목에서 사물에 대한 작가의 섬세한 관찰력을 엿볼 수 있군.
- ⑤ '사내'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26.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한다. [A] ~ [E]의 연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개찰원과 텔레비전 속 한 장면,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편집한다.
- ② [B]: 실습 대상을 찾는 그의 시선을 좇아 카메라를 움직여 포착되는 대상들을 차례로 보여준다.
- ③ [C]: '사내'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회고 가느다란 담배를 클로즈업하여 노동자의 모습을 부각한다.
- ④ [D]: 다시 등장한 '사내'를 통해 물건을 팔 수 있으리라는 '그'의 기대감을 드러내기 위해 밝고 경쾌한 효과음을 삽입한다.
- ⑤ [E]: '그'와 '사내'의 역할을 맡은 두 배우는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는 표정으로 연기하도록 한다.

[27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래시계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용기가 나누어져 있고, 두 용기 사이는 좁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래를 용기 윗부분에 위치하도록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중력에 의해 윗부분에 있던 모래가 아래로 떨어진다. 모래가 떨어지는 시간이 일정하도록 조절해 놓았기 때문에, 모래시계는 모래가 다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같다. 제법 정밀하게 만든 모래시계는 초 단위까지 정확하다. 이로써 모래시계가 1회 모래를 떨어뜨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정 단위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앞서 모래시계의 윗부분에 있는 모래는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모래시계 윗부분에 존재하는 모래의 질량을 m 이라고 하면, 모래가 받는 중력(F)은 '모래의 질량(m)×중력가속도(g)'가 된다. 모래가 단위시간 동안에 일정량만큼 떨어지면 Δm (윗부분의 모래 질량 변화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중력 F 의 크기도 일정하게 줄어든다.

그렇다면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빠져 나갈수록 중력(F)이 줄어들어 속도가 느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모래가 아래로 흘러내려 모래가 줄어들어도, 계속 일정한 양이 흘러나와 정확한 시간이 측정된다. 어떻게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마찰력 때문이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질 때, 모래시계 벽면에 붙어있는 마찰력이 약한 모래층만 흘러내리고 그 외의 부분은 고정된 것과 마찬가지다. 벽면 가까이 있는 모래가 구멍을 따라 떨어지고 나면, 다시 그 벽면과 닿는 모래의 마찰력이 감소하여 구멍을 따라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는 윗부분 모래들이 누르는 압력과 관계가 없다.

모래의 유출 속도는 모래시계 안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되는 구멍의 단면적과 모래의 양,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조절하면 다양한 주기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구멍의 단면적이 넓을수록 유출되는 모래의 양은 많아지므로 모래시계의 주기가 짧아진다. 그리고 모래의 양이 많으면 오랜 시간에 걸쳐 떨어지므로 모래시계의 주기가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시계의 주기를 늘리려면 유출되는 구멍의 크기를 줄이고 모래의 양을 늘려주면 된다. 이때 모래는 알갱이의 크기가 일정하고,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여야 좋다. 정동진에 세워져 있는 모래시계는 한 번 모래가 다 떨어지는 데 1년의 시간이 걸리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정확도를 위해 모래 대신에 일정한 크기의 고분자물질을 사용하였다.

27.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래시계의 벽면 가까이에 있는 모래가 먼저 아래로 떨어진다.
- ② 모래 알갱이의 크기가 일정할수록 모래시계의 정확도는 높아진다.
- ③ 모래시계의 윗부분에 있는 모래의 양과 중력의 크기는 반비례한다.
- ④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다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
- ⑤ 모래시계의 윗부분 모래들이 누르는 압력은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8. 위 글과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패러독스 모래시계’는 입자 알갱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모래가 움직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패러독스 모래시계 안에는 기름 성분의 액체와 입자 알갱이가 들어 있다. 입자 알갱이는 모래가 아니라 기름 성분의 액체보다 밀도가 낮은 고분자 물질이다.

밀도가 낮은 고분자 알갱이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패러독스 모래시계를 세워 놓으면 물에 기름이 뜨듯이 고분자 알갱이가 뜨게 된다. 모래시계 안에 일정한 밀도의 고분자 알갱이가 들어 있다면 구멍을 통과하는 속도가 일정하게 되므로, 고분자 알갱이는 일정한 시간 동안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 ① 패러독스 모래시계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군.
- ② 일반 모래시계는 패러독스 모래시계보다 시간의 정확도가 더 높겠군.
- ③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일반 모래시계는 패러독스 모래시계보다 주기가 길겠군.
- ④ 일반 모래시계와 패러독스 모래시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은 동일한 것이군.
- ⑤ 일반 모래시계는 마찰력을, 패러독스 모래시계는 물질의 밀도차를 이용한 것이군.

29. [A]를 참고할 때, 모래시계의 주기가 가장 긴 것은?

	모래의 양	모래 유출 구멍의 면적
①	50	2
②	50	3
③	50	5
④	20	2
⑤	20	5

[30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논밭 갈아 김 매고 베잠방이 대넘쳐 신들매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둘러메고 ㉠ 무림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쉼을 베고 잘라서 지계에 짚어 지팡이
 받쳐 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비우고 곰팡대를 툭툭
 떨어 ㉡ 일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조율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꼬 하더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나)

㉢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아낙네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띠집* 처마 아래 손을 얹게 하고 ㉣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 오네.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냐 하니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나물도 마음대로 못 뜯는다네. 슬프다 외판 살이 어찌 좋으리 험하고 험한 ㉤ 산골짜에서.....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렵다네.	下馬問人居 婦女出門看 坐客茅屋下 爲我具飯餐 丈夫亦何在 扶犁朝上山 山田苦難耕 日晩猶未還 四顧絕無隣 鷄犬依層巒 中林多猛虎 採藿不盈盤 哀此獨何好 崎嶇山谷間 樂哉彼平土 欲往畏縣官
---	--

- 김창협, 「산민(山民)」 -

* 띠집: 띠나 이엉 따위로 지붕을 인 초라한 집.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다) 어느 날, 나는 텅 빈 운동장에서 두 팔을 앞뒤로 높이 휘저으면서 혼자 걸어가는 한 어린이를 지나쳐 볼 수가 있었다. 밤 사이에 내린 첫눈으로 뒤덮인 운동장은 동녘 하늘에 솟아 오르는 햇살에 더욱 눈이 부시었다. 그 흰 눈 위를 생기가 넘치는 그 어린이는 마치 사열대 앞을 행진하는 군인처럼 기운차게 신이 나서 꺼덕꺼덕 걸어가는 꼴이 하도 익살맞아서, 나는 혼자 웃음을 참으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어린이는 가끔 그 활발한 행진을 멈추고 차려의 자세로 서서 고개를 돌려 뒤를 한동안씩 바라보다가 전과 똑같은 보조로 두 팔, 두 다리를 높직높직 쳐들면서 다시 걸어가는 것이었다. 옥판선지(玉板宣紙)* 같이 깨끗한 흰 눈 위에 작은 발자국이 자국자국 무너져서 길게 뻗어 나가고 있었다.

이 어린이는 눈 덮인 운동장을 깨끗하게 일직선으로 걸어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다가는 발을 멈추고 서서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가 어느 정도로 똑바른가를 검토해 보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 어린이가 걸어간 발자국은 부분적으로는 곧았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곳에서 바른편으로 또는 왼편으로 굽어 있었다.

나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그 어린이의 행동을 통하여 적지 않은 것을 느꼈고, 또 배울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부귀 빈천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누구나 자기들의 일생을 곧고 바르게 걸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걸어간 그 생애의 발자취들은 작고 큰 허다한 파란(波瀾)* 속에 ㉠ 가지가지의 복잡한 곡선을 그리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영원히 끝을 맺고 마는 것이다. 인생은 결국 눈 덮인 들판에 가지가지의 발자국을 남기고 걸어가는 나그네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 눈 덮인 운동장 위를 걸어가는 저 어린이가 짹짹 걸음을 멈추고 서서 고개를 돌려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을 그윽이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슬기로운 일인가?

- 유달영, 「초설(初雪)에 부쳐서」 -

* 옥판선지(玉板宣紙): 폭이 좁고 두꺼우면서도 빛이 희고 결이 고운 고급 종이.
* 파란(波瀾): 순탄하지 아니하고 어수선하게 계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

3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화자의 내면 심리를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31. (나)와 <보기>를 연관 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공자가 어지러운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던 중 초라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으니 호랑이가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라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 주는 말이로다.”라고 하였다.

- ① (나)의 화자와 <보기>의 ‘공자’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있군.
- ② (나)의 ‘아낙네’와 <보기>의 ‘여인’ 모두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군.
- ③ (나)의 ‘아낙네’와 <보기>의 ‘여인’ 모두 관리의 횡포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군.
- ④ <보기>의 ‘호랑이’와 달리 (나)의 ‘호랑이’는 벼슬아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군.
- ⑤ <보기>의 ‘공자’와 달리 (나)의 화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군.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연과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② ㉠은 일상적 삶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③ ㉡은 외롭고 가난한 삶이 이어지는 공간이다.
- ④ ㉡은 부정적 현실에서 도피한 공간이다.
- ⑤ ㉠과 ㉡은 현실적 삶을 영위하는 노동의 공간이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농부의 여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 : 화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 : 인정 있는 ‘아낙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 : 많은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 :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대상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4. (다)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가]에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대상	첫눈이 내린 운동장을 걷어가는 어린이
상황	어린이는 가끔 뒤돌아봄 + 어린이의 발자국이 굵어 있음
깨달음	([가])

- ① 도전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함.
- ② 유연성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함.
- ③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함.
- ④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함.
- 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필요함.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습도에는 절대습도와 상대습도가 있는데, 불쾌지수를 따질 때의 습도는 상대습도를 말한다. 절대습도는 말 그대로 일정한 부피의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말하고, 상대습도란 상대적인 습도, 즉, 현재 온도의 포화수증기량*에 대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을 백분위로 나타낸 것이다.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습도는 상대습도이다.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는 상대습도를 40~60%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포화수증기량이 많아지거나 대기 중 수증기량이 적어질수록 상대습도는 낮아진다. 포화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 높아지게 마련이므로, 공기를 가열하면 포화수증기량을 늘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상대습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기 중의 습기를 직접 제거해도 상대습도를 낮출 수 있다. 제습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습도를 조절하여 공기를 쾌적하게 한다.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에는 냉각식과 건조식이 있다. 건조식은 화학물질인 흡습제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습제품과 같이 공기 중의 습기를 직접 흡수하거나 흡착시킨다. 흡습제가 습기를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면 흡습제를 다시 가열해서 이때 분리되는 습기를 제습기 바깥으로 내보내면 흡습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밀폐된 공간에서 소량의 수분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 흡습제에는 수분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다공성 물질인 실리카겔, 알루미늄겔, 몰레큘러시브, 염화칼슘 등이 있다.

냉각식 제습기는 공기 중의 수증기를 물로 응축시켜 습기를 조절한다. 수증기를 응축시키기 위해서는 이슬점* 이하로 공기의 온도를 내려야 한다. 때문에 냉각식 제습기는 냉각을 위해 에어컨과 같이 냉매를 이용한다. 프레온 냉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습기에는 R-22가 사용된다. 습한 공기를 팬으로 빨아들인 뒤 냉매를 이용한 냉각장치로 통과시킨다. 냉각장치를 통과하면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고, 공기가 이슬점에 도달해 수증기가 물로 변해 냉각관에 맺혀 물통에 떨어져 모인다. 찬물을 담은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셈이다. 습기가 제거된 건조한 공기는 응축기를 거쳐 다시 데워진 후에 실내로 방출된다.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기 쉬워 제습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제습 외에 전자식으로 제습을 하는 기기들도 찾아볼 수 있다. 전자식 제습은 펠티에 효과(Peltier effect)를 이용한 열전냉각 방식으로 작동한다. 펠티에 효과는, 다른 두 금속의 양 단면을 서로 연결하고 전기를 통하게 하면 그 양 단면에서 발열과 냉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전자제습기는 이 효과를 적용한 열전반도체 소자를 사용하며, 냉각되는 금속판 쪽에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축되어 밖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전자식제습기는 소음이 없고 소형화가 가능해 카메라나 보청기와 같은 정밀기기를 보관하는 제습함에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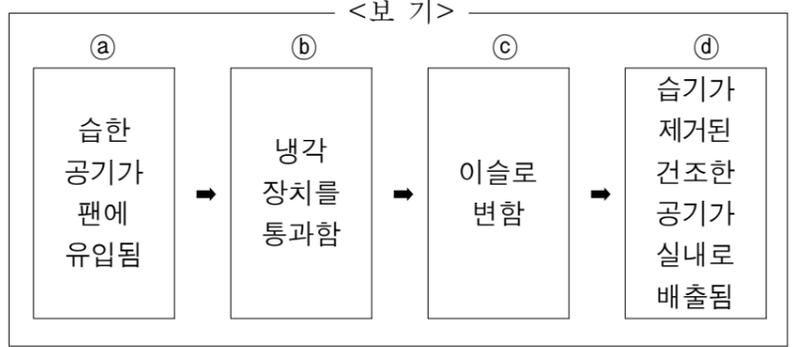
* 포화수증기량: 공기가 최대한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
* 이슬점: 공기가 포화되어 수증기가 응결될 때의 온도.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대습도는 포화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 ②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습도는 불쾌지수와 관련이 있다.
- ③ 전자식 제습기는 정밀 기기를 보관하는 제습함에 이용된다.
- ④ 건조식 제습기는 밀폐된 공간의 습기를 제거할 때 적합하다.
- ⑤ 냉각식 제습기와 전자식 제습기는 발열과 냉각이 동시에 일어난다.

[36 ~ 37] <보기>는 '냉각식 제습기의 제습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6번과 37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3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에서 실내의 절대습도는 낮아진다.
- ② ㉠보다 ㉡에서 포화수증기량이 더 많아진다.
- ③ ㉡에서는 냉매를 이용해 공기의 온도를 낮춘다.
- ④ ㉡ ~ ㉢에서 수증기가 물로 변한다.
- ⑤ ㉤에서 공기는 응축기를 통해 온도가 높아진다.

37. ㉠ ~ ㉢ 과정에 나타난 현상과 유사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
- ② 겨울에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서 물이 된다.
- ③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안으로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서린다.
- ④ 응급실에서 고열환자의 몸을 알코올로 닦으면 몸이 차가워진다.
- ⑤ 여름에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시원해진다.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왕이 크게 기뻐하여, 용골대와 울대 형제로 대장을 삼아 정병 30만을 주어 가로되,
 “부디 **의주**로 가지 말고 동으로 돌아 들어가되, 의주길을 막아 소식을 통치 못하게 하라.”
 한다. 황후 또 양장을 불러 가로되,
 “이번에는 동으로 들어가 장안을 바로 **엄살***하면 임경업도 몰라 성공을 할 것이니, 부디 우의정 이시백의 집 후원은 범치 말라. 만일 범하다가는 성공은 새로에 목숨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부디 명심 불망하라.”
 양장이 수명하고 군사를 거느려, 동으로 **황해수**를 건너 바로 장안을 향하였다.
 각설. 이때 박씨 피화당에서 천기를 보고 승상을 청하여 가로되,
 “북방 호적이 금방 들어오는가 싶으니, 급히 **탑전***에 아뢰어 임경업을 내직으로 불러 군사를 조발하여 막으소서.”
 승상 가로되,
 “북방 호적이 들어오면 북으로 올 것이니, 임경업은 북방을 지키는 의주 부윤이라. 어찌하여 오는 길을 버리고 내직으로 부르리까?”
 부인 가로되,
 “호적이 북방으로 오지 아니하고 동으로 황해수를 건너 들어 올 것이니, 바빠 임경업을 **패초***하옵소서.”
 승상이 크게 놀라 급히 들어가 부인의 말을 낱낱이 아뢴대, 상이 놀라사 만조백관이 다 경황하여 임경업을 패초하려 의논 하더라. 이때 좌의정 원두표(元斗杓) 아뢰어 가로되,
 “북방 오랑캐는 본디 간계 많사오니 분명 그러하올 듯하오니, 박부인 말씀대로 하여 보사이다.”
 한대 김자점(金自點)이 발연 변색하고 아뢰어 가로되,
 “제신의 말이 그르도소이다. 북적이 여러 번 경업에게 패한 바 되었사오니 기병할 수 없사옵고, 설사 기병하여 온다 하여도 북으로밖에 없사오니, 만일 임경업을 패초하였다가 호적이 의주를 쳐 항성하면 그 세를 당치 못하며 국가 흥망이 경각에 있을지니, 어찌 요망한 계집의 말을 듣고 북방을 비우고 동을 막으리이까. 이는 다 나라를 망할 말이라. 어찌 지혜 있다 하오리까.”
 상이 가로되,
 “박부인은 신인이라 신명지감이 있어 여러 번 신기함이 있으니, 그 말대로 하고자 하노라.”
 자점이 또 아뢰되,
 “시방 시화연풍 국태민안하오니, 이런 태평성대에 무슨 병란이 있으리. 박씨는 요망한 계집이어늘, 전하 어찌 요망한 말을 침혹하시며, 국가 대사를 아이 희롱같이 하시나니이까.”
 하니 만조백관이 김자점의 말이 그른 줄 알되, 아무 말도 못 하더라. 상이 그 일로 유예 미결하시고 조회를 파하시는지라. 우상이 집에 돌아와 그 연고를 부인더러 말하니 부인이 아연 탄하여 가로되,
 “슬프다, 호적이 미구에 도성을 범하려 하되, 간인이 나라의 총명을 가리워 사직을 위태케 하니 절통치 않으리요. 이제 급히 임경업을 불러 동편에 북병하였다가 냅다 치면 파하기는 어렵지 아니할지라. 이제는 속절없이 손을 매어 놓고 완연히 도적을 받으려 하니, 이제는 국운이 불행하니 무가내하*라. 대감이 이미 나라에 헌신하였사오니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비록 전패지경(全敗之境)을 당하여 죽더라도 신자의 도리에 국가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름

을 후세 전하게 하옵소서. 만일 위급한 때를 당하여 김자점으로 병권을 맡길진대 망극한 일을 볼 것이니, 어진 사람을 가리어 맡기게 하옵소서.”
 우상이 이 말을 듣고 강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수심으로 지내더니,
 ‘죽기로써 다시 아뢰리라.’
 하고 궐내에 들어가니, 이때는 병자년 동 10월이라.
 우상이 미처 **탑전**에 미치지 못하여서 동대문 밖으로서 방포 일성에 금고 함성이 천지 진동하며 호병이 동문을 깨치며 **장안**을 엄살하니, 장안이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만나 모두 분주하는 지라. 백성들이 도적의 창검에 죽는 자가 무수하여 주검이 태산 같더라. 장안 인민이 하늘을 우러러 땅을 두드려 살기를 바라는 소리 천리 진동하는지라. 상이 망극하여 어찌 할 줄 모르시고 우상더러 가로되,
 “이제 장안이 벌써 함몰되고, 구화문에 도적이 들어오는지라. 내 장차 어찌하리요?”
 우상 가로되,
 “일이 급하였사오니 남한으로 행하시이다.”
 하고 옥교를 재촉하여 서문으로 나오니라. 또한 중로에서 호적의 북병을 만나 우상이 칼을 잡고 죽기로 싸워 북병하였던 장수를 베고, 겨우 길을 얻어 피시고 남한에 들어가니라.
 각설. 이때 박씨 일가 친척을 다 모아 **피화당**에 피난하는지라. 호장 용골대가 제 아우 울대로 하여금,
 “장안을 지키어 물색을 수습하라.”
 하고 군사를 몰아 **남한산성**을 에워싸는지라.
 용골대 장안에 응거하여 물색을 추심하니 장안이 물끓 듯하며, 살기를 도망하여 죽는 사람이 무수한지라. 피화당에서 피난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도망코자 하거늘 박씨 가로되,
 “이제 장안 사면을 도적이 다 지키었고, 피난코자 한들 어디를 가리요. 이곳에 있으면 피할 도리 있으리니 염려 말라.”
 하더라.
 이때 울대 100여 기를 거느려 우상의 집을 범하여 인물을 수탐하더라. 내외 적적하여 빈집 같거늘, 차차 수탐하여 후원에 들어가 살펴보니, 온갖 기이한 수목이 좌우에 벌여 무성하였는지라.
 울대 고이히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마다 용과 범이 수미를 응하며, 가지마다 뱀과 짐승이 되어 천지 풍운을 이루며, 살기 가득하여 은은한 고각 소리 들리는데 그 가운데 무수한 사람이 피난하였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엄살: 갑자기 습격하여 죽임.
 *탑전: 임금의 자리 앞.
 *패초: 조선 시대 때 승지를 시켜 왕명으로 신하를 부름.
 *무가내하: 어찌할 수가 없음.

3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정의 신하들은 김자점의 말을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 ② 임금은 박씨의 탁월한 능력을 믿어 그 말을 따르고자 하였다.
 - ③ 박씨는 위기를 당하여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 ④ 김자점은 임경업을 내직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 ⑤ 승상은 호적이 황해수로 침입하리라는 박씨의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39. 다음 지도에 나타난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호적이 침입하였다.
- ② ㉡는 임경업이 수비하고 있었다.
- ③ ㉢에서 전쟁의 참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에서 울대의 영웅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⑤ ㉤에서 우상의 충성심이 드러나고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갈등은 문학과 예술에서 중심이 되는 두 성격의 대립 현상을 말한다. 갈등은 그 성격에 따라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인 '내적 갈등'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자연, 사회와 사회, 개인과 운명 등의 갈등인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서사물에서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세계관과 가치관의 대립 양상을 보여주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과 개인의 대립, 자아와 세계의 대립, 인물 내면의 모순된 감정이나 가치관의 충돌을 통하여 구성상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 ① 울대가 박씨의 피화당을 침입함으로써 구성상 긴장감이 유발되고 있다.
- ② 박씨와 김자점의 갈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당대 남성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③ 호적이 침입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사회와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 ④ 김자점과 원두표의 갈등은 박씨의 말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 대립에서 비롯되고 있다.
- ⑤ 호적과의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우상의 내적 갈등이 묘사되고 있다.

41. 위 글의 '박씨'를 평가할 수 있는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① 선견지명(先見之明) ② 우유부단(優柔不斷)
- ③ 일취월장(日就月將) ④ 주마가편(走馬加鞭)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실록은 제왕 한 사람씩의 재위 기간 동안의 역사를 날짜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처음에는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역사'란 뜻으로 해석해 실록이라고 평(評)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실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다. 중국에서는 주홍사의 『양황제실록』이 처음이며, 당나라 이후 실록이 편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실록이 편찬되었고, 본격적인 편찬은 조선에 들어서이다. 조선 시대에도 고려 시대의 예에 따라서 왕이 즉위하면 앞선 왕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관청인 춘추관에 별도로 실록청 또는 일기청을 열고 총재관·도청당상·도청낭청·각방당상·각방낭청 등을 임명하였다. 실록의 편찬 작업에서 ㉠ 사초(史草)라 부르는 사관(史官)*들의 기록이 가장 기본 자료로 쓰였고, 여러 관청의 기록물도 참고하였다. 사초는 춘추관에서 매일 기록한 시정기(時政記)와 춘추관 소속의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스스로 보관했다가 실록을 편찬할 시기에 제출하는 기일이 정해졌다.

모든 자료들을 모아 1차로 작성된 원고를 초초(初草)라고 하며, 이를 다시 수정·보완해 두 번째 원고인 중초(中草)를 만들고, 다시 한 번 수정하고 문체를 다듬어 ㉡ 정초(正草)라 불리는 완성된 원고를 만들었다. 정초는 교서관에서 세 별을 활자로 인쇄해 춘추관과 지방의 외사고에 보관되었다. 보관된 실록은 엄격한 보관·관리가 이루어져 왕도 볼 수 없었고, 꼭 보아야 할 때는 관리를 보내 필요한 부분만 등서(謄書)*해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이는 사관의 직필(直筆)*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실록은 후세에 기록을 남겨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편찬하였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일에 과거의 사례를 알고자 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사고(史庫)에 사람을 보내서 실록을 베껴 오도록 하였다. 한편 실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로서, 이전 국왕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초 자료의 구실을 하였다. 따라서 국왕들은 사관의 기록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록을 국왕조차도 함부로 볼 수 없게 만든 까닭이었다. 물론 국왕이 강제로 실록의 기록을 열람한 경우도 있다. 연산군은 만들어지고 있던 실록의 사초를 열람하여 사화(士禍)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실록을 열람하는 것은 국왕의 지위를 포기하기 전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실록 편찬은 후대에 참고가 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1차적인 목적은 선왕의 업적을 총 정리하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총 정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당대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선왕대에 이루지 못하였던 과제를 확인하고 이것을 이어받는 절차였다. 막연하게 이전 시대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 계승할 대상과 부정할 대상에 관해 총체적인 백서를 마련하는 작업이 곧 실록의 편찬이었다.

* 시정(時政): 그 당시의 정치나 행정에 관한 일.
 * 사관(史官): 역사의 편찬을 맡아 초고를 쓰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 등서(謄書): 원본에서 베껴 옮김.
 * 직필(直筆):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적음.

42.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실록의 개념 ② 실록의 보존 기간
- ③ 실록의 편찬 기관 ④ 실록의 편찬 시기
- ⑤ 실록의 보관 장소

4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실록 편찬'의 궁극적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왕의 여러 가지 행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 ② 선왕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 ③ 국가의 중요한 일을 기록해 후세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 ④ 선왕대의 과제를 확인하여 당대에 무엇을 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 ⑤ 앞 시대를 부정하고 후대 왕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44. 위 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조보감』은 조선왕조 역대 군주의 가언(嘉言)*과 선정(善政)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뽑아 연대순으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이다. 『국조보감』에 인용된 사료는 대체로 실록의 편찬에 이용된 사료 가운데서 선택하였으므로 실록의 내용과 비슷하였으며, 실록의 내용과 비교할 때 요약한 것이 많다. 따라서 사료적 가치라는 면에서는 실록에 견주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실록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인식되어 왔다. 또한 후대의 군주들에게 감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일부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아예 수록하지 않거나 기사의 일부분을 삭제·변경하기도 하였다.

실록이 그 기록의 치밀함과 보존의 엄정성 때문에 쉽게 참고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국조보감』은 국왕들에게 따라야 할 전범*과 반성의 재료로써 제공되어 항상 쉽게 볼 수 있었다.

* 가언(嘉言): 본받을 만한 좋은 말.

* 감계: 지난 잘못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계.

* 전범: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 ① 실록은 『국조보감』과 편찬 목적에 차이가 있었군.
- ② 실록은 『국조보감』에 비해 사료로서의 가치가 더 높겠군.
- ③ 『국조보감』은 실록에 비해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였군.
- ④ 『국조보감』은 왕이 항상 열람할 수 있어서 쉽게 참고할 수 있었겠군.
- ⑤ 실록과 『국조보감』은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였군.

45. ㉠ :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이다.
- ② 원석을 갈고 닦아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었다.
- ③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점차 감기 환자가 늘고 있다.
- ④ 건강을 위해서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유용하다.
- ⑤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